

# 이슈

2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177호



겨울왕국2

## 겨울왕국이 온다

올해 극장 개봉작 중 최고 기대작 11월 중순, 5년만에 후속편 공개 주제곡 '인투 더 언노운' 벌써 화제

'1000만 흥행'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다시 온다.

2014년 1월 개봉해 주제곡 '렛 잇 고'(Let It Go) 열풍에 힘입어 1026만여 관객을 동원한 '겨울왕국'이 5년 만에 11월 중순 후속편을 공개한다. 11월22일 북미 개봉에 맞춰 국내 관객을 만날 전망이다.

'겨울왕국2'는 올해 극장 개봉작 가운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다. 1편이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뒤 IP TV는 물론 음악과 관련 상품 등을 통해 '무한반복' 인기를 얻어온 덕분이다. 때문에 11월 개봉을 염두에 둔 일부 한국영화 가운데 "겨울왕국2"는 피하지는 분위기까지 퍼졌을 정도다.

'겨울왕국2'는 1편의 성공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 아렌델 왕국의 두 공주 안나와 엘사는 물론 올라프, 크리스토프 등 인기 캐릭터가 빠짐없이 출동한다. 목소리 연기를 맡은 배우들도 그대로다. 기획과 각본, 연출자도 같다.

다만 전 세계에서 12억7600만 달러(약 1조5300억원)를 벌어들인 히트작의 후속 편답게 스케일은 키웠다.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1일 "안나와 엘사가 아렌델 왕국의 진실, 엘사가 지닌 마법의 비밀을 찾는 모험을 그린다"며 "1편보다 성장한 캐릭터와 확장된 스케일을 갖췄다"고 밝혔다.

'겨울왕국2'의 폭발력은 1편처럼 주제곡에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4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렛 잇 고'는 극장에서 관객의 '폐창'을 연출한 히트곡이다. 2편의 주제곡은 '인투 더 언노운'(Into The Unknown). 1일 '숨겨진 세상'이란 제목으로 일부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역시 '렛 잇 고'의 주역 이디나 멘젤이 불렀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1986년 AG 유도 금 박경호-1984년 양궁 금 서향순의 막내딸 ... 첫 프로골프대회 나서는 '캐서린 박'



골프 입문 후 첫 번째 프로 무대를 앞둔 캐서린 박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 앤리조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캐서린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었다. 인천 | 고훈준 기자

## '금메달 DNA' 물려받은 15세 장타 소녀

### 내일 KLPGA 하나금융 챔피언십 출전

골프하던 언니따라 자연스럽게 입문 드라이버 270·7번 아이언 170야드 美 박세리 주니어대회 우승해 출전권 골프대디 박경호씨 "피는 못속여요"

이보다 더 완벽한 스포츠 DNA가 있을까. 한국 유도과 양궁에서 한 획을 그었던 부모님 그리고 각각 프로 골프선수과 야구선수로 활약했던 언니와 오빠를 둔 '유망주 골퍼' 캐서린 박(15·한국명 박성운)을 만나고서 처음 떠오른 생각이었다. 아직 국내 골프팬들에게는 이름이 익숙지 않지만 캐서린은 누구보다 특이한 스포츠 유전자들을 지닌 15살 소녀다. 우선 핏줄을 물려준 부모님의 면면이 대단하다. 아버지는 1986아시아게임 유도 86kg급 금메달리스트인 박경호(46), 어머니는 1984LA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품은 서향순(42)으로 각종 국제 대회에서 레전드로 통하는 인물이다. 언니 박성민(28)과 오빠 박성대(25) 역시 각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KBO리그 SK 와이번스에서 최근까지 선수로 뛰었다. 골프 입문 후 첫 번째 프로 무대를 앞둔



캐서린 박은 누구보다 특이한 스포츠 유전자를 지녔다. 아버지는 1986아시아게임 유도 86kg급 금메달리스트인 박경호(오른쪽), 어머니는 1984LA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품은 서향순(왼쪽)이다. 인천 | 고훈준 기자

캐서린은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 앤리조트에서 만났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개막을 이틀 남겨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던 캐서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클럽을 잡은 뒤 이번 대회를 통해 드디어 프로 선배들과 필드를 밟게 됐다. 조금은 긴장되더라도 한편으로는 설렌다"고 수줍게 말했다.

캐서린은 2004년 박경호와 서향순 부부의 늦둥이 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선수 시절 태릉선수촌에서 1984LA올림픽을

함께 준비하면서 사랑을 꽃 피웠고, 1990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서향순 씨는 "결혼 후 청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주변의 권유로 영어 공부도 하고 후학 양성도 할 겸 이민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민을 준비하면서 막내딸을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캐서린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캐서린은 앞서 골프를 하던 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클럽을 잡았다. 포레스트보다 키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단단한 체구

를 앞세워 자신만의 장점을 발전시켜갔다. 현재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는 약 270야드, 7번 아이언으로는 170야드 정도를 보내는 장타자다.

박경호 씨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피는 못속인다'는 말을 실감했다. 원래 자녀들 만큼은 절대 운동선수로 키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찌 하다보니 캐서린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는 골프 대디가 됐다"고 멋쩍게 웃었다.

캐서린은 4월 미국에서 열린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박세리 주니어챔피언십에서 정상을 밟으면서 성장 가능성을 알렸다. 이 대회 우승으로 3일 개막하는 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출전권을 얻은 캐서린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코스를 공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처음으로 한국 골프팬들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골프만큼 공부에도 흥미가 많다는 캐서린은 인터뷰 말미 포레스트지 않은 공부도 밝혔다. 우상인 박세리와 타이거 우즈처럼 선수로서 굴지한 족적을 남긴 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더 큰 꿈을 펼치고 싶다는 각오였다. 이를 위해 밤낮으로 골프와 학업을 병행하는 캐서린이다.

"대학 진학을 하면 경영학을 배우고 싶다. 책과 골프채 모두 놓칠 수 없는 이유다." 인천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 '손가락 욕' 김비오, KPGA무대에서 3년간 퇴출

상벌위 "프로선수로서 경솔한 행동" 현역 프로선수 생활서 가장 큰 위기

사상 초유의 '손가락 욕설' 사태를 일으킨 대가는 컸다.

경기 도중 갤러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김비오(29·호반건설)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로부터 3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향후 선수생활에도 큰 위기를 맞았다.

KPGA는 1일 경기도 성남시 KPGA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비오에게 3년 자격정지와 벌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 처벌은 1일부터 바로 적용돼 김비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KPGA가 주관하는 대회를 뺄 수 없다.

논란의 장면은 지난달 29일 열린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에서 발생했다.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던



김비오

도중 한 관중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켜 소리가 났고, 영향을 받아 실수를 한 김비오는 곧장 해당 갤러리에게 오른쪽 가운데손가락을 내밀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전파를 타면서 김비오는 사회적으로 큰 지

탄을 받았다.

결국 KPGA는 사건 후 이튿날인 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김규훈 상벌위원장은 "김비오 사건 이후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프로선수로서 경솔한 행동을 한 만큼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로 출석한 김비오는 "제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갤러리분을 비롯해 모든 동료 선수들과 KPGA 및 스폰서 관계자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KPGA의 모든 결정을 따르겠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사죄했다.

당시 대회에서 손가락 욕설을 한 뒤 우승을 차지했던 김비오는 경기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이를 의식했던 탓인지, 이날 상벌위원회를 앞둔 기자회견에서는 무릎 꿇기도 했다. 고훈준 기자

## 고진영·박성현·이정은6 세계 1,2,3위 첫 싹쓸이

한국 선수들이 사상 처음으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1~3위를 휩쓸었다.

고진영(24·하이트진로)과 박성현(26·솔레이), 이정은(63·대방건설)은 1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나란히 1위와 2위, 3위를 이들을 올렸다. 특정 국가 선수들이 1~3위를 독식한 적은 세계랭킹이 신설된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017년 9월 유소연(29·메디힐)이 1위, 박성현이 2위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1~2위를 싹쓸이했고, 이번 발표로 독식 범위를 3위까지 넓혔다.

고진영과 박성현은 각각 10.47점과 7.96점으로 1위와 2위를 굳게 지키기 가운데 기존 4위였던 이정은이 6.29점을 기록해 3위 랭크 톱 스텝(24·미국)을 제쳤다. 3위는 이정은의 개인 통산 최고 순위이기도 하다. 한편 '골프 여제' 박인비(31·KB금융그룹)는 10위에서 8위로 집프했고, 김세영(26·미래에셋)과 김효주(24·롯데), 유소연이 나란히 13~15위로 뒤를 이었다. 고훈준 기자